Ⅳ.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논술전형 기출문제

1. 인문사회계열 A유형(경제학과, 국사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부, 일어일본문화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철학과, 행정학과),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의류학과, 아동학과 논술전형 문제

[문항 1] '자장면'과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각각의 근거를 (가), (나)에 제시된 표기법 및 원칙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가) 국어 사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규범 중 하나로 표준어 규정을 들 수 있다. 표준어 규정의 핵심인 표준어 사정(査定) 원칙을 살펴보면, 제 1항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 2항에서는 외래어의 표준어 사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어를 결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시대적, 지역적 기준을 적용하지만 외래어를 심사하여 표준어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 심사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기준으로 별도로 심사하여 표준어 여부를 결정한다.

외래어 표기법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말과 외국어는 음운 체계가 다르므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이 없다면 사람마다 외래어를 다르게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은 외국어 본래의 발음을 반영하여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慣用)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camera, radio 등은 '캐머러', '레이디오우'가 아니라 '카메라', '라디오'로 표기해야 한다.

(나) 짜장면의 어원은 '볶은 장을 얹은 면'이란 뜻의 중국어 '작장면'(炸醬麵·zhajiangmian)이다. 1986년 국어연구소(현 국립국어원)는 'zh음을 ㅈ으로 쓴다'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자장면을 유일한 표준어로 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950년대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고 이미 굳어진 말인 짜장면은 하루아침에 비표준어가 되어 버렸다. 즉 자장면은 바른말이고 짜장면은 틀린 말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많은 이들이 반발했다. 표기법에 집착하느라 대중이 사용하는 말과는 너무 다른 표기를 내세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기존 원칙을 바꾸는 것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자장면으로 표기하는 것이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을 준다는 주장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짜장면 표준어 인정안이 2010년 2월에 국어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그 후 1년 반의 검토를 거쳐 2011년 8월에 국립국어원은 자장면과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 [문항 1] 출제의도, 문항해설 및 평가기준

출제의도

가) (가), (나)의 논지를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통하여 독해 능력을 평가한다.
나) (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의 현상을 분석,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다)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

- (가)는 표준어 사정 원칙과 외래어 표기법의 근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나)는 '자장면'을 사례로 들면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문제에서는 (가)에서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과 (나)에서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게 된 사례를 분석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가기준

[기본사항]

가) 8등급으로 평가 : A+, A0, B+, B0, C+, C0, D, F ※F는 0점
나)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평가
다)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평가
라)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마)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내용]

⊙ 채점 방향

(1) 제시문 (가), (나)의 중심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2) 외국어 본래의 발음을 반영하여 표기한다는 원칙 및 외래어 표기법 세부조항에 근거하여 '자장면'으로 표기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3) 대중이 사용하는 발음으로 굳어진 경우 관례를 존중하여 표준어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짜장면'으로도 표기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 채점 포인트

(1)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점수 A등급 이상 부여
(2) '자장면'과 '짜장면'이 각각 다른 근거에 의하여 표준어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두 가지 근거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 : 2등급 감점
(3) '자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한 근거 두 가지(-외국어 본래의 발음을 반영하여 표기한다는 원칙 및 외래어 표기법 세부조항)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경우 : 1~2등급 감점
(4) 대중이 사용하는 발음이 굳어진 경우 관례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거나, 그것이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한 근거임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2) 분량
  ① 40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350자 초과~4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250자~3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200자~2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⑤ 200자 미만 : F

나. [문항 1] 예시답안

'자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외국어 본래의 발음을 반영하여 표기한다는 원칙 및 외래어 표기법의 세부 사항에 근거한다. 단어의 어원은 중국어 '작장면'인데, 그 첫소리인 'zh'를 우리말에서는 'ㅈ'으로 표기한다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여 '자장면'이 표준어가 되었다. 2011년 이후에는 '짜장면'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다수가 사용해오면서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慣用)을 존중하여 표기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즉, radio라는 단어의 외래어 표기가 영어 발음인 '레이디오우'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라디오'가 된 것처럼, 대중이 사용해온 발음을 반영하는 '짜장면'이 표준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344자)

[문항 2] (가)의 내용을 토대로 (나)의 '직장인 이씨'와 (다)의 '종술'의 심리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관계주의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 집단 내 관계를 중시하며 자신의 지위나 능력에 대한 판단도 상대방의 평가에 크게 의존하는 문화 유형이다. 관계의 힘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 의지가 집단을 벗어나기 어려워 남의 주장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키려 하는 것은 관계주의 문화의 단점으로 자주 지적된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 외부에서 얻으려 하다 보니 자아가 약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집단의 영향을 덜 받는 등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이다.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면 그 사람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그 사람은 자기를 고양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쉽게 고양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소유물로 자신을 드러내는 '물적 자기'이다. 자신을 빛나게 하는 물건이나 외양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이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명품 소비, 성형수술이나 과시용 근육 단련, 장식만을 위한 가전제품의 구입, 혹은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에의 집착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소유물에 의존하는 것은 이러한 심리의 산물일 수 있다.

(나) 최근 SNS 이용이 늘어난 **직장인 이씨**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명품가방이나 고급 자동차를 일부러 살짝 엿보이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한다."며 "부럽다는 댓글을 보면 자존감이 높아진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를 '타아도취'라는 신조어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만 '나'를 인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타인의 판단과 취향이 곧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 시대에는 소비에도 '정답'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유경험자나 인기인들에 대한 일방적 신뢰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소비를 통해 그 집단에 속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는 것이다. 인기 연예인이 착용한 액세서리, 다수가 '신상'이라고 지목하는 사물들에 다가가야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다는 안정감을 느낀다. 직장인 이씨의 경우는 명품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특정 집단의 소비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 온 숱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뇌리를 스쳤다.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시장 경비나 방범들의 눈을 피해 목판을 들고 골목으로 끝없이 쫓겨 다니던 시절, 도로 교통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 오던 시비와 단속 등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 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아들한테서 저수지의 감시원으로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암댁은 삼 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듯한 상쾌함을 맛보았다.

"월급이 많지 않은 만큼 허는 일도 별로 없구만요. 그저 감시원 완장이나 차고 슬슬 바람 쐬기 겸 제방이나....."

"뭣이여야? 완장이여?"

"예, 여그 요짝 왼팔에다 감시원 완장을 처억 허니 둘르고 순시를 돌기로 했구만요. 그냥 맨몸뚱이로 단속에 나서면 권위가 없어서 낚시꾼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고 말을 잘 안 들어 먹으니깨요."

"너 그것 안 둘르고 감시원 헐 수는 없겄냐?"

당치도 않은 말씀이었다. 순전히 완장의 매력 한 가지에 이끌려 맡기로 한 감시원이었다. 그런데 그걸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아들더러 언제까지고 개망나니, 먹고 대학생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에이 참, 엄니도! 엄니는 동네서 사람대접 조깨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여엉 못마땅허요?"

가. [문항 2] 출제의도, 문항해설 및 평가기준

출제의도

가) 제시된 지문의 논지를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 능력을 평가한다.
나) 제시된 지문의 논지를 적용하여 구체적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을 평가한다.
다) 적절한 개념과 논리를 이용하여 조리 있게 자신의 논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

- (가)는 관계주의 문화에서 자존감이 가지는 의미와 관련하여 물적 자기 개념을 제시한다.
- (나)는 자신의 소비에 대해 타인의 반응을 살피는 행위가 물적 자기 개념과 관련된 현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다)는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에 집착하는 행위가 물적 자기 개념과 관련된 현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에 근거해 (나)와 (다)의 인물이 보여주는 심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가기준

[기본사항]

가) 8등급으로 평가 : A+, A0, B+, B0, C+, C0, D, F ※F는 0점
나)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평가
다)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평가
라)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마)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내용]

⊙ 채점 방향

(1) 제시문 (가)의 관계주의 문화, 자존감, 물적 자기 사이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파악했는가
(2) 제시문 (나)와 (다)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심리를 비교하는 데 (가)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했는가

⊙ 채점 포인트

(1) 제시문 (가)에서 관계주의 문화에서 자존감을 위해 물적 자기에 의존하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절히 지적했을 경우 : A등급 이상 부여
※ 공통점 : 물적 자기를 고양하여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
※ 차이점 :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명시했을 경우
① 무엇을 통해서인가 - 명품 소비를 통한 것과 권위, 또는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통한 것
② 어떻게 확인하는가 - 타인의 반응을 통한 것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것
③ 소속인가, 지배인가 -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자하는 것과 남들과의 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

(2)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3)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나)와 (다)의 공통점만 서술했거나, 또는 차이점만 서술한 경우: 1~2등급 감점
(4)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나)와 (다)의 비교에 전혀 적용하지 못한 경우 : 2등급 감점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2) 분량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⑥ 350자 미만 : F

나. [문항 2] 예시답안

(가)에서는 집단 내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지위나 능력에 대한 판단도 상대방의 평가에 크게 의존하고 남의 주장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키려 하지만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집단의 영향을 덜 받는 등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점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인 자존감이 중요해지는데,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 이를 극복하고자 할 때, 자신의 물리적 소유물로 물적 자기를 쉽게 고양할 수 있기에 이에 의존하게 된다. (나)의 '직장인 이씨'와 (다)의 '종술'은 모두 물리적 소유물을 통해 물적 자기를 고양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나)의 '직장인 이씨'는 SNS에 게시한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차의 사진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이 특정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데 반해, (다)의 '종술'은 자기 스스로 권위를 부여한 완장을 차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540자)

[문항 3] (가)에 제시된 국민연금 강제 가입에 대한 입장을 (나)와 (다)의 관점에 근거해서 반박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제 노후는 저의 몫이니 국민연금 탈퇴시켜주세요.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무슨 권리로 모든 국민의 돈을 뺏어가나요?"

2018년 9월,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자문안이 공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600여 개의 청원이 쏟아졌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자문안이 공개되자 불만이 속출했다.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라는 과격한 청원도 올라왔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강제 가입과 보험료 강제 징수에 대한 반대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 30여 년 간 지속됐다. 1999년 6월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김모씨 등 116명이 국민연금 제도가 조세법률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되고, 납입한 보험료 액수만큼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헌법소원 제기의 근거였다.

(나) 인간의 의사결정은 근시안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고통을 감수하기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이르거나 임박해서 후회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다.

일부에서는 개인이 현재의 소비를 선호해 선택한 것이라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은 개인들이 실수할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후 빈곤으로 굶어죽게 된다면, 그것도 개인 선택의 결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할까.

《넛지》라는 책을 쓴 테일러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인지능력과 의지력의 한계로 인해 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흡연을 그만두고 싶고 은퇴 후를 생각해서 저축을 더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적절한 간섭과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대상자이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 가입이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한다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손해를 보는 고소득집단은 대체로 민영연금으로 빠져나가고 국민연금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저소득집단만 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계층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저소득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 빠져나가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제도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평균치보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순차적으로 남게 되는 현상을 역(逆)선택이라고 하는데, 자발적인 국민연금 가입은 심각한 역선택의 문제를 야기하여 국민연금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민영연금의 경우 이런 역선택의 문제를 사전 자격심사를 통해 해결한다. 즉 민영연금은 건강이 나쁜 사람, 위험직종 종사자, 도덕성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와 이에 기초한 높은 보험료율 부과 등을 통하여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하지만 민영연금의 한계는, 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상 배제되고 결국 고소득계층만이 가입하여 노후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통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의 가입을 사전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연금의 자발적 가입을 인정하게 되면 역선택 현상이 계속되고 종국에는 국민연금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없이는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가. [문항 3] 출제의도, 문항해설 및 평가기준

출제의도

가) 제시문 (가)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 능력을 평가한다.
나) 제시문 (나), (다)에 근거해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다)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라)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

- (가)는 국민연금 강제 가입 및 징수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한다.
- (나)는 인간 의사결정의 근시안성에 근거해 개인 선택에 있어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말한다.
- (다)는 국민연금이 개인 선택에 맡겨질 경우 역선택의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제도가 붕괴될 수 있음을 말한다.
- 문제에서는 (가)에서 제시된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징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에 나타난 인간 의사결정의 근시안성과 (다)에 나타난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의 문제 등에 근거해 반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가기준

[기본사항]

가) 8등급으로 평가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나)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평가
다)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평가
라)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마)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내용]

◉ 채점 방향

(1) (가), (나), (다)의 중심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2) (나)에 나타난 관점에 근거해 (가)의 입장을 잘 반박하고 있는가
(3) (다)에 나타난 관점에 근거해 (가)의 입장을 잘 반박하고 있는가

◉ 채점 포인트

(1) (가), (나), (다)의 중심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2) (나)의 관점으로 (가)의 입장을 반박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3) (다)의 관점으로 (가)의 입장을 반박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4) 국민연금 강제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나)와 (다)의 관점 간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2) 분량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⑥ 350자 미만 : F

나. [문항 3] 예시답안

(가)에서 반대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원치 않는데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터뜨린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반박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합리성은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미래 빈곤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미래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저축보다 소비를 선택한다. 이처럼 불완전한 합리성에 의한 선택을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방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개개인이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을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경우 역선택에 의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국민연금과 민영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민영연금은 고소득층만을 선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민연금은 고위험층만 남게 돼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필요하다. (537자)

※ 실제로는 한 문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